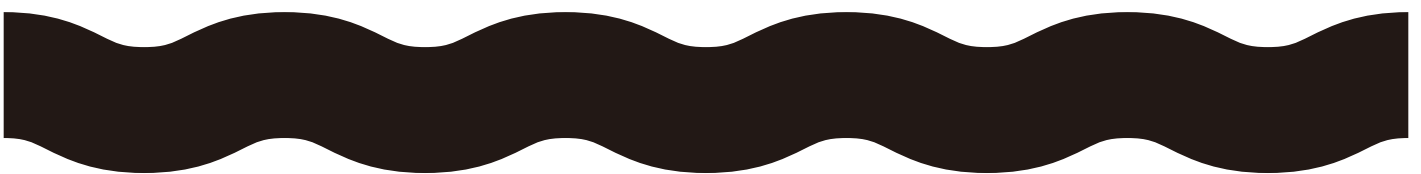


# 미니버스, 오르트 구름, 드떨:안녕인사

Minibus, Oort Cloud, Fluttering Pages

쉬운 글, 큰 글씨  
전시 소개



## 《미니버스, 오르트 구름, ㄷ떨:안녕인사》

2025.4.10-5.18

아르코미술관 제1, 2전시실



### 참여 기획자

권혁규, 김도희, 김신재



### 참여 작가

《미니버스》 강석호, 권오상, 김솔이, 노은주, 문이삭, 박광수, 야광

《오르트 구름》 김규림, 이민지, 한우리, 홍진훤, 황효덕

《ㄷ떨:안녕인사》 고재욱, 권세정, 김용관, 마실, 문이삭, 박혜연, 신제현, 신지선, 이생강, 임성연, 정희영, 조상인, 조습, 조영주, 조은지, 최소연



### 아르코미술관

03087 서울 종로구 동숭길 3

02-760-4850

[www.arko.or.kr/artcenter](http://www.arko.or.kr/artcenter)

### 관람시간

오전 11시-오후 7시 (입장마감 6시 30분)

매주 월요일 휴관

관람료 무료

인스타그램 @arko\_art\_center

페이스북 ARKOArtCenter

X @ArkoArtcenter

유튜브 @arkoart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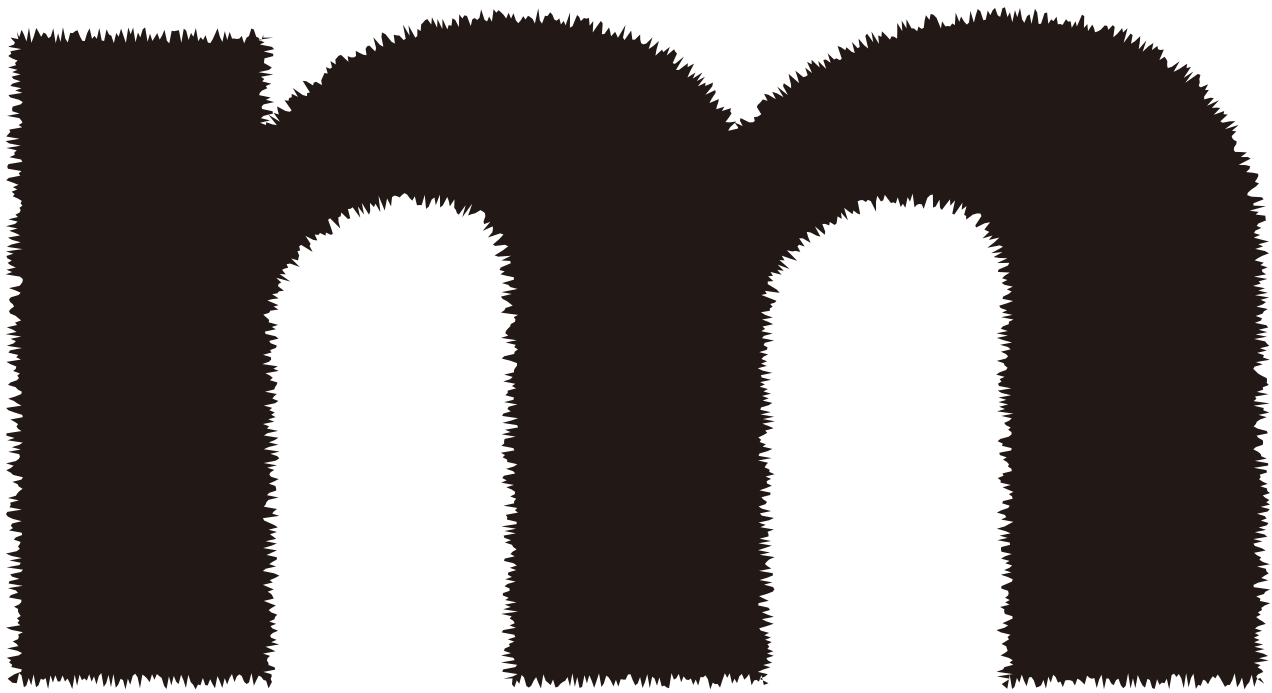


전시 《미니버스, 오르트 구름, ㄷ떨:안녕인사》는 인사미술공간(인미공) 개관 이후 약 25년 동안 공간이 남긴 문화적 자산을 엿보는 전시입니다. 3명의 외부 기획자는 예술인 스물 여덟명과 함께 서로 다른 세 개의 전시를 만들었습니다. 인미공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제도적이지 않고 실험적이며 자유로운 공간으로 여겨졌습니다. 2000년 개관 이후 350건 이상의 전시와 프로젝트를 통해 창작 지원, 교육, 비평지 발간, 영상 미디어 배급, 레지던시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인미공의 다양한 사업 중 신진 작가 지원, 영상 미디어 활성화, 시각 예술 비평지 발간이라는 세 가지 주요 역할을 다룹니다. 3명의 기획자들이 각자의 연구와 활동을 바탕으로 세 가지 사업을 각각 전시와 책으로 풀어냅니다. 각 전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니버스》는 인미공의 정체성과 역사 기술의 방식을 다시 생각해보는 전시입니다. 권혁규 기획 《오르트 구름》은 오늘날의 기술 환경 속에서 무빙 이미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탐구합니다. 김신재 기획 《ㄷ떨:안녕인사》는 인미공의 마지막 순간을 예술과 공간, 사람의 떨림으로 연결합니다. 김도희 기획

각 전시의 개념은 포스터에 시각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미니버스》는 ‘소문자, 이동, 경유지’ 등의 키워드를 담고 있으며, 《오르트 구름》은 ‘흩어진 혜성, 신호, 얼음조각’ 등을 포함합니다. 《ㄷ떨:안녕인사》는 ‘다양한 목소리, 부드러운 떨림’을 상상하게 합니다. 이러한 키워드는 인미공이 중요시해온 다양성, 작은 목소리, 소문자의 철학을 반영합니다.

인미공은 종로구 인사동에 위치해 있으며, 젊은 예술가들의 활동 중심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6월, 인미공의 역사는 끝나지만, 공간이 남긴 문화적 자산은 앞으로도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 전시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한 사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 미니버스

## Minibus

제1전시실

# 전시 《미니버스》, 권혁규 기획

모든 전시는 결국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잊혀지는 전시는 어떤 역사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전시 《미니버스》는 이제 곧 운영을 중단하는 인사미술공간(인미공)의 25년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확정된 사라짐’을 표현하면서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하는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신진’, ‘대안’, ‘젊음’, ‘실험’ 같은 단어들로 인미공의 정체성과 그 실천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공공 자금으로 운영되는 미술 공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성과를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니버스》는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하는 방법을 다시 생각하면서, 전시와 공간의 사라짐, 그리고 그 주위의 시간과 사건들이 어떻게 현재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질문합니다.

인미공의 시간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공간의 시작과 끝은 미술 창작, 교육, 제도와 행정, 과열된 시장 분위기, 한국 미술의 다양한 흐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을 넘어 현재를 바라봅니다. 공간의 시간을 현재 시점에서 생각해보고 과거의 유산을 복구하기보다는 ‘사라짐’ 속 관계를 강조합니다. 이 전시는 ‘현재’와 ‘지금’을 생각해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미니버스”는 우리가 ‘지금’을 이해하는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개념입니다. 전통적인 여정을 따라 정해진 시작과 끝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와 움직임을 상상합니다. 미니버스에서는 직선으로 가는 대신, 오히려 돌아가거나 이상한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선택에 따라 출발점과 도착점이 다르게 나타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틈’이 생깁니다. 전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금’이라는 순간을 끼워 넣어, 기존의 시간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지금’이 겹쳐지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인미공에 참여한 작가들의 작품은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들은 시간의 뒤를 돌아보고, 순서를 바꾸며, 다시 배열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난 작품들은 과거와 미래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고, 한 사건의 시간을 넘어서 다른 사건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미니버스》는 빠른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오늘날의 전시를 반성하고, 전시가 역사의 의미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인미공의 정체성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놓친 ‘지금’들을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한 경로들이 인미공의 시간과 사건들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떠올려 봅니다.

결국, 결정되지 않은 상태인 전시는 다른 실체와 연결되어 스스로 바뀌어야 합니다. 어떤 시간은 잊혀지는 과정에서 다른 시간과 겹치고 만나면서 더 명확해집니다. 이번 전시에서 이야기하는 ‘사라짐’이 완전히 끝나지 않고 새로운 길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재와의 관계 속에서 항상 여러 모습으로 나뉘기를 기대합니다.

# 《미니버스》 작가별 작품소개

강석호는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대상을 오랫동안 바라봅니다. 그는 사진 이미지를 잘라내고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변을 회화적인 대상으로 바꾸어 바라봅니다. 전시 《미니버스》는 2019년부터 작가의 작고 전까지 이어진 ‘큐브 시리즈’로 시작합니다. 전시에서 큐브는 ‘의복’, ‘피부’, ‘제스처’를 담은 시리즈와 연결되고 서로 다른 표면이 맞닿게 됩니다. 시간 순서와 상관없이 작품들을 배열하여, 기존의 이미지를 새로운 시각성 안에서 재구성합니다.

권오상의 조각은 끊임없이 어긋나는 상황을 물질로 표현합니다. 그는 2001년에 인미공에서 열린 첫 개인전 《Deodorant Type》에서 수백 장의 사진으로 덮인 가벼운 조각들을 선보이며, 표면과 덩어리 등 조각의 성격과 특성을 다시 생각해보게 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시도는 이후 작품인 <더 스퀴프처 The Sculpture>, <더 플랫 The Flat>, <뉴 스트럭처 New Structure>로 이어졌습니다. 작가의 사진 조각과 가구, 그리고 예전 작품을 브론즈로 다시 만든 최근 작업까지 모두 포함하는 이번 전시는, 작품 사이의 시차와 운동성을 만들어 냅니다.

김솔이의 조각은 의미를 만드는 행위를 변형과 수행의 끊임없는 과정으로 여깁니다. 작가는 자신의 조각을 사라질 운명을 기리는 기념비의 위치에 둡니다. 그리고 이를 여성성의 주제와 연결합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과거에 발생했다가 사라진 것들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는지 질문합니다. 작가는 과거 인미공창작소 프로젝트에서 구상했던 미완의 조각을,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돌발성 난청과 연결합니다. 과거의 감각이 현재의 경험과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 처럼, 내외부가 뒤섞인 조각은 또 다른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노은주**의 회화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공간에 대한 독특한 감각을 탐구합니다. 작가는 도시에서 쓰임을 다한 물질과, 기능을 잃은 사물들을 드로잉, 모형 제작, 촬영, 그리고 그리기를 통해 재구성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인미공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동료 작가 박보마, 손현선, 윤지영과 함께 자신의 작업실의 장면을 재구성합니다. 이번 작업은 작가들 간의 연대의 감각과 정서를 회화가 형성하는 관계의 경험으로 표현합니다.

**문이삭**은 여러 가지 재료와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사는 시대의 물질과 이미지가 인간의 경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탐구합니다. 작가는 가상공간, 사진 이미지, 스티로폼, 에폭시, 세라믹 등을 사용한 이전 작품들을 쌓고 새로운 작품으로 구성합니다. 서로 다른 이유와 방법이 공존하는 쌓기의 과정으로 기존 작업들 사이의 관계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구성된 이번 작품은 각각의 작업들을 더 다양하게 감상하게 합니다.

**박광수**의 그리기는 불확정적인 흐름을 의도하고, 예측할 수 없는 장면들을 탐구합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인미공에서의 개인전 《Man on pillow》<sup>2012</sup>의 도록을 잘라 캔버스 한쪽에 붙여 전체를 덧그립니다. 이를 통해 지난 시간을 되돌아 보며 기억과 그 흔적들이 쌓여있는 모습을 탐구합니다. ‘그리기’와 ‘들춰보고 긁어내기’의 과정은 기록과 망각이 함께하는 장면을 만들고, 여러 시간과 꿈이 섞인 판타지 같은 풍경을 만듭니다.

**야광**은 기존의 젠더 개념과 관점을 문제화하는 영상과 퍼포먼스를 만듭니다. <크세노스><sup>2025</sup>는 기존의 영상 작업 <침입자><sup>2024</sup>의 장면을 전환한 것입니다. 이전 영상 작업에서 출연진들이 신체 일부에 소형 카메라를 부착해 같은 상황을 여러 시점에서 기록하여 원래의 맥락을 알기 어렵게 합니다. 때로는 ‘진짜’ 촬영 현장이 노출되고 내/외부 상황과 대화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는 원본의 정해진 시간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간의 층위를 탐구하고 불화의 정서를 확장합니다.

# 《미니버스》 작가 소개

**강석호**는 스스로를 산보와 보는 행위를 무척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 소개합니다. 《3분의 행복》서울시립미술관, 2022, 《디 아더》페리지갤러리, 2017, 《떼어내기-붙이기》스페이스 윌링앤딜링, 2012, 《금호영아티스트》금호미술관, 2006, 《복장》인사미술공간, 2005 등의 개인전을 개최했습니다.

**권오상**은 인류 조각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동시대적인 내용을 담은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1999년 대안공간 루프의 그룹전에서 데뷔한 뒤, 2001년 인사미술공간에서 첫 개인전을 가졌습니다. 이후 아라리오 서울, 베이징, 뉴욕, 상하이, 그리고 영국 맨체스터 시립미술관 등 다수의 국내외 개인전 및 단체전에 참여했습니다.

**김솔이**는 변형과 파괴를 통해 조각이 작가의 생각을 넘어서 스스로 의미를 생성하는 순간을 탐구합니다. 《김솔이 개인전》YPC SPACE, 2023을 개최했고, 《말괄량이 길들이기》뮤지엄헤드, 2022, 《TAP UNTAP》소소, 2021, 《도끼와 모조 머리들》인사미술공간, 2021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습니다.

**노은주**는 회화를 주 매체로 서울에서 활동합니다. 《노트 투 리프》챗터투, 2023, 《Blue Window》금호미술관, 2021, 《Walking—Aside》스페이스 윌링앤딜링, 2019 등 네 번의 개인전과 대만 Yu-Hsiu Museum of Art<sup>2025</sup>, 인터럽<sup>2024</sup>,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sup>2023</sup>, 송은<sup>2022</sup>, 갤러리 바톤<sup>2022</sup>, 아트선재센터<sup>2021</sup>, d/p<sup>2020</sup> 등에서 열린 전시에 참여했습니다.

**문이삭**은 소조의 개념을 동시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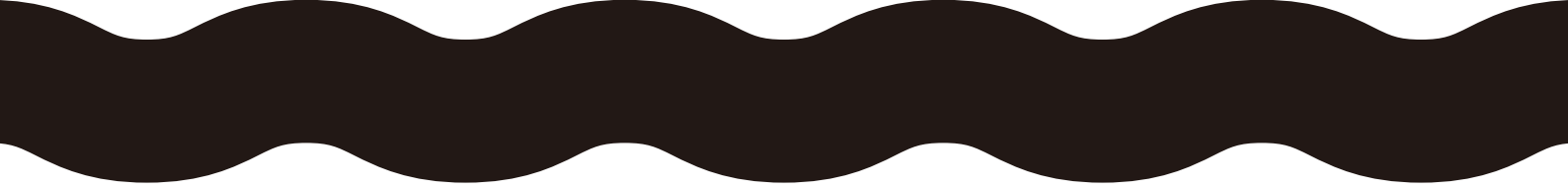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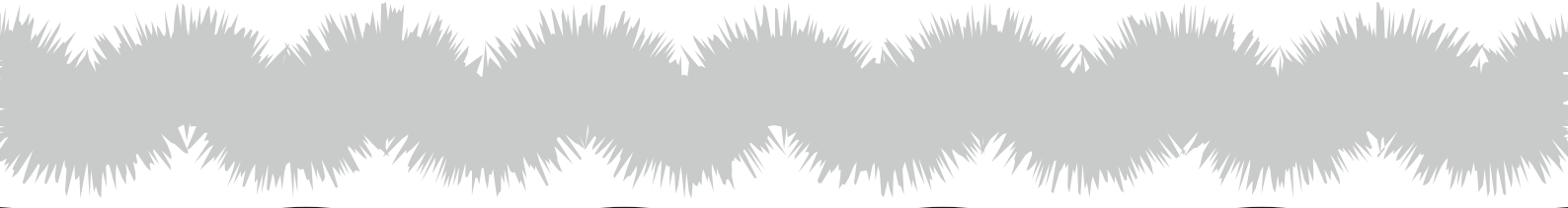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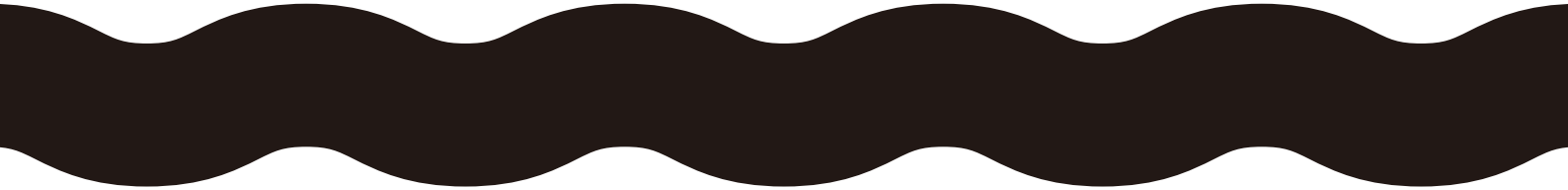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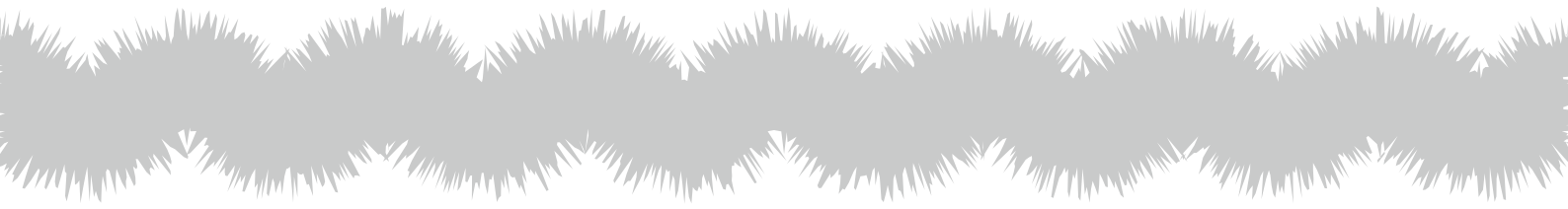
《Rock&Roll》뮤지엄헤드, 2022, 《Beam Me Up!》금호미술관, 2021 등의 개인전을 열었고, 《화이트스페이스》수립큐브, 2024, 《접촉》교보아트스페이스, 2024, 《제23회 송은미술대상》송은, 2023, 《포물라》프라이머리 프랙티스, 2023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습니다.

**박광수**는 삶의 혼돈과 아름다움, 자연과 인간의 경계, 소멸과 종말이라는 주제에 집중해 회화와 드로잉, 애니메이션 등의 작업을 선보여왔습니다. 개인전으로 《구리와 손》**학교재, 2023**, 《크라커》**카다로그, 2021**, 《부스러진》**두산갤러리, 2017** 등을 개최했습니다.

**야광**은 김태리와 전인으로 이루어진 90년대 출생 시각예술가 듀오 콜렉티브입니다. 2021년 7월 프로젝트 《윤희유》를 기점으로 결성되었으며, 개인전 《카인드:KIND》**PS센터, 2024**, 《윤희유》**윈드밀, 2022**를 열었고, 《스퀴시! 숲속에서》**인사미술공간, 2024**, 《인투 더 리듬》**아르코미술관, 2024**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습니다.

## 《미니버스》 기획자 소개

**권혁규**는 주로 전시를 기획하고 글을 씁니다. 불확실한 대상을 물리적 현존으로 전환하는 큐레이팅 방법론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자 운영 플랫폼 WESS의 공동 운영자**2019-2023**로 활동했고, 연간 출판 프로젝트 『뉴스페이퍼』의 기획 및 편집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뮤지엄헤드의 책임 큐레이터**2020-현재**로, 《인저리타임》**2021**, 《모뉴멘탈》**2023**, 《흑백논리》**2024** 등의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축소할 수 없는 기원과 함께하는, 돌연변이의 모략 같은 미술을 소중히 여깁니다.



# **Flutter:안녕인사**

## **Fluttering Pages**

**제1전시실, 제2전시실**

# 책 『ㄷ떨:안녕인사』 및 전시, 김도희 기획

『ㄷ떨:안녕인사』는 1970년대 한국 초기 미술 저널에서 영감을 받아 2023년에 창간된 경험주의 미술 저널 『ㄷ떨』의 첫 특별판입니다. 『ㄷ떨:안녕인사』는 사라지는 인사미술공간(인미공)의 흔적을 기억하고 이를 담고자 했습니다. 인미공은 2000년대 초반, 민주주의가 성장하던 시기에 신진 작가와 기획자들의 실험적인 공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번 기획은 인미공을 지나온 여러 세대의 작가와 기획자들을 초대하여 이 공간에서 형성된 예술적 흐름을 돌아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인미공은 새로운 예술을 실험하기에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ㄷ떨:안녕인사』는 인미공을 경험한 작가, 기획자, 기자들의 글과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조명합니다. 참여자들은 인미공에서의 경험을 나누며, 그 공간이 자신들에게 미친 영향을 이야기합니다. 저널은 원서동 골목 탐방으로 시작하여, 개인적인 경험과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인미공이 아르코미술관 전시와 연결되는 방식으로 마무리됩니다.

『ㄷ떨:안녕인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인미공을 거친 작가, 기획자, 기자들이 그 공간을 기억하는 글과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참여 작가로는 고재욱, 권세정, 김용관, 마실, 문이삭, 신제현, 신지선, 조습, 조영주, 조은지, 최소연 등이 있습니다. 책은 원서동 골목 소개로 시작해 인미공에서 배우고 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후에는 작가들의 경험이 담긴 여러 섹션이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공트>와 <작별인사>로 확장되어 마무리됩니다. 이 과정은 인미공과 서로를 연결하는 경로를 탐구합니다. 인미공은 많은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작업을 선보인 공간으로 기억되며, 그 경험은 각자의 예술적 흐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ㄷ떨:안녕인사』는 한 시대의 마무리와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계기가 되며, 공간을 통해 작가와 기획자, 이웃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이 책을 통해 그 공간의 흔적을 되살리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다른 인사를 준비하길 바랍니다. 안녕, 그리고 또 안녕.

# 『D떨:안녕인사』 작가 작품 소개

고재욱은 2018년 인사미술공간에서 개인전 《크로스플랫폼》을 열었는데 이는 의뢰인들의 다양한 소망을 전시로 구현해 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영상 <아트레이버>는 이 프로젝트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권세정은 2019년 인사미술공간 개인전 《아그네스 부서지기 쉬운 바닥》을 선보였습니다. 주로 가까운 곳에 있는 대상이나 관계에서 비롯된 오해와 충돌, 사회 현상이나 구조적 모순이 작업의 주요 소재입니다. 당시 전시에서는 ‘피해자의 이미지’, ‘엄마 (혹은 어머니, 여성)’, ‘늙은 개, 밤세’가 작업의 주요 키워드였습니다. 이 작품은 책에 소개 된 입체 작품 <가슴에서 배><sup>2019</sup>의 사진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김용관의 <닭은꿀>은 2013년 인사미술공간에서 개인전 《표본공간, 희망에 의한 기관의 변이 - 김용관》에 출품한 작품 <닭은꿀> 시리즈 중 일부입니다. 이 작품은 감상적인 언어로 이루어진 책들을 자르고 재배열하여 정사각형으로 만든 조각입니다. 각 책은 원래의 목소리를 잃은 대신, 책이라는 느낌과 미세한 뉘앙스만을 남겨 관람객에게 새로운 해석을 제공합니다.

마실의 인터뷰 영상은 원서동을 지켜온 럭키 부동산과 오디션 미용실 사장님의 인터뷰를 편집한 것입니다. 부동산과 미용실이라는 생업과 삶에 밀착하여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예술적 감수성, 그리고 일화는 개인적인 특성을 넘어, 원서동이라는 장소가 가진 분위기와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신제현은 <인사싸운드2011>는 2011년 인사미술공간 개인전 《아린 프로젝트》를 위해 제작한 전시장 모형을 2025년에 다시 만든 것입니다. 작가는 당시 인사미술공간에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공간에 악기 형태의 오브제를 설치하여 관람객이 실시간으로 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제현의 <아린 프로젝트>는 2011년 <인사 싸운드>에서 시작하여 건축물을 악기로 만드는 <아린 프로젝트>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이 작품은 워크숍 참여자가 오래 보관하다가 버리려던 자개장으로 악기를 만들고 연주할 수 있게 한 프로그램의 결과물입니다. 공간을 악기로 만들고 쓰이지 않는 공간, 시각 외의 감각, 참여자의 깊은 개입을 강조했습니다.

신지선의 <원서동 놀이터>는 원서동 프로젝트 ‘담을 두른 동네’에 등장하는 드로잉 작품입니다. 오래된 원서동 놀이터(현재는 사라짐)를 그리며 창덕궁의 담이 원서동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다양한 풍경으로 재구성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신지선은 이 작품으로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시간대의 주거문화와 미감, 정부 정책을 반영한 창덕궁 담의 여러 모습을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조습은 2001년에 인사미술공간에서 열린 첫 개인전 《명랑교 첫 부흥회 “난 명랑을 보았네!”》를 통해 한국 전쟁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의 맹신을 B급 개그 형식으로 담아냈습니다. 이 전시는 상징들이 가진 위선과 폭력성을 드러내며 관람객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개인전의 전시 도록 앞표지를 선보입니다.

『드떨』의 ‘푸로필’은 동료 작가들이 서로의 얼굴을 그리고 각자의 시각으로

서로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드떨:안녕인사』에서는 조은지와 조영주가 서로를 그린 그림과 글로 관계를 조명합니다. 조은지는 <글이라는 안전한 허구와 영주라는 따뜻한 사캐즘(sarcasm)>을 위해 조영주의 얼굴을 그렸고, 조영주는 <개소또는은지>라는 글을 기고하며 조은지의 얼굴을 그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유머를 전달했습니다.

최소연은 2004년 인사미술공간에서 개인전 《접는 미술관》을 진행하였고,

제주 선흘 마을에서 진행한 드로잉 프로젝트 <할머니의 예술 창고>를 통해 마을 할머니들에게 그림을 권장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여성 농부가 예술가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지역 예술 교육의 좋은 사례로 자리잡았습니다. 또한 소셜뮤지엄이 지향하는 로컬미술관의 첫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본 전시에는 오가자 신나는 할망과 김인자 고목낭 할망의 그림과 자료집이 전시됩니다.

# 『드멜:안녕인사』 필진 소개

**고재욱**은 사회 시스템의 또다른 면을 다양한 프로젝트로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문제를 사람들과 나누면서 작가와 관객 사이의 벽을 허물어줍니다. 고양창작스튜디오, 제로원, 명륜동 작업실, 테미예술창작센터, ACC 아시아 창작공간 레지던시 등의 입주작가로 활동하였으며 《abandoned》아트뮤지엄 러, 2024, 《COINCIDE》아웃사이트, 2022, 《CROSS PLATFORM》인사미술공간, 2018 등의 개인전과 《예기치 않은》국립현대미술관, 2016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습니다.

**권세정**은 자신이 속한 환경 안의 경계와 주변부를 탐색하며 이를 다양한

작품으로 선보입니다. 최근에는 주로 콜렉티브 ‘권동현×권세정’으로 활동하며 비인간동물과 인간동물이 뒤엎힌 순간을 상상하는 작업을 합니다. 개인전으로 《아그네스 부서지기 쉬운 바닥》인사미술공간, 2019, ‘권동현×권세정’ 팀 개인전 《러브 데스 도그》YPC SPACE, 2023를 개최했으며, 두산인문극장 기획전 《우리는 개처럼 밤의 깊은 어둠을 파헤칠 수 없다》두산갤러리, 2024를 비롯해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사전프로그램 《테라인포밍》서울시립미술관, 2022 등 다양한 단체전과 영화제에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김용관**은 지금 이곳이 아닌 새로운 시공간에 관심이 많은 작가입니다. 그리고

점, 선, 면, 도형 등을 토대로 새로운 이미지와 이야기를 상상합니다. 주요 전시로 《폐기된 풍경》메이크샵아트스페이스, 2015, 《표본공간, 희망에 의한 기관의 변이》인사미술공간, 2013 등의 개인전이 있으며, 《두 바퀴 회전》페리지갤러리, 2018 등의 기획전에 참여했습니다. 홍대 앞에 있는 전시공간(全時空間)이라는 이름의 전시공간(展示空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실(장윤정, 우수경, 국현, 박혜영)**은 2023년에 결성된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글쓰기 모임입니다. 마실(산책)이라는 모임명처럼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일상적으로 함께 나누고 글쓰기를 통해 발전하며 담론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문이삭**은 소조(흙을 붙이고 조각하는 기법)의 개념을 재해석하면서 시각성과 사물, 그리고 이와 상호작용하는 인간의 경험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에게 소조는 단순히 점토를 이용한 만들기가 아니라, 덧붙이기와 형체가 변형되는 성질을 실험하면서 이미지와 사물 사이에 놓인 존재를 탐구하는 행위입니다. 《Rock&Roll》뮤지엄헤드, 2022, 《Beam Me Up!》금호미술관, 2021 등의 개인전과 《화이트스페이스》수립큐브, 2024, 《접촉》교보아트스페이스, 2024, 《제 23회 송은미술대상》송은, 2023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습니다.

**박혜연**은 현대미술을 연구하는 미술사학자이자 비평가로, 현재 경희대학교 미술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1970년대의 초기 비디오 아트, 퍼포먼스, 그리고 제도 비판 미술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비영속성과 놀이의 미학: 앨런 캐프로의 환경과 해프닝」이 있으며, 대표 저서로는 『Park Hyunki: I'm Not a Stone』갤러리 현대, 2021이 있습니다. 2017년 아시아 문화재단ACC의 Individual Research Grant를 수상하였습니다.

**신제현**은 개인적 경험과 사회 문제를 조사하면서 사회 시스템의 이면을 추적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사회, 역사, 그리고 예술제도를 비평하면서 예술가의 역할에 대해 실험하고 확장하는 대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전으로는 《앨리스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금호미술관, 2024, 《시간의 모양》스페이스돔 미술관, 2024, 《Hidden Side2023 뮌헨 싸운드》Space n.n., 독일 뮌헨, 2023 등이 있고 《보더리스 사이트》문화역서울 284, 2021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습니다.

**신지선**은 회화, 드로잉, 사진, 영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로 장소와 시간성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며, 우리 문화 고유의 가치에 대해 탐구합니다. 《달, 인어, 바다》PNC 갤러리, 2023, 《눈의 소리》서울시립미술관 세마창고, 2019, 《어떤 시간, 어떤 장소》금천예술공장, 2015, 《수집된 이야기의 풍경》스페이스 매스/Hal 할프로젝트, 2013, 《원서동》인사미술공간, 2009 등의 개인전을 개최했습니다.

**이생강**은 서양화와 미학을 공부한 후 기획자로 활동하며 시각 예술을 기반으로 삶과 예술이 만나는 지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전시로는 《정레브리핑 14시, 27일》대구예술발전소, 2022, 경기도미술관 경기천년특별전 《경기 아카이브\_지금》상상캠퍼스, 2019이 있으며, 시흥문화발전소 ‘창공’의 총괄 기획자, 경기도 평택시 복합문화공간 ‘협업공간 한치각, 두치각’을 운영했습니다.

**임성연**은 독립 큐레이터로 2009년 ‘무소속연구소’를 결성하였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 기반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카페 보스토크와 프로젝트 스페이스 ‘공공연희’를 운영하며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과 도시 재생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서대문구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다음을 위한 달음>을 진행했으며, 다수의 도시재생 및 문화도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했습니다.

**정희영**은 미술, 정치, 자본, 창작 및 일상에 대한 관심을 가진 기획자입니다.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근무한 뒤, 재단법인 아름지기에서 책임 큐레이터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주요 전시로는 《링, 동그라미를 가리키고 사각을 뜻하는》인사미술공간, 2019, 《拳擊台: 亦圓亦方》주흥콩한국문화원, 홍콩, 2020, 《짐승에 이르기를》합정지구, 2021, 《고려미려: 추상하는 감각》아름지기, 2022, 《불이라도 곁에 없으면》플랜비프로젝트스페이스, 2023 등이 있습니다.

**조상인**은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에서 미술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2008년부터 『서울경제신문』의 미술·문화재 분야 전문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정보원 비상임 이사, 한국예술경영학회 이사, 국립고궁박물관 운영위원, 서울시 공예박물관 운영위원을 역임하였습니다. 현재는 백상 미술정책 연구소장이며 미술전문 유튜브 채널 ‘미미상인’을 운영합니다.

**조습**은 이성과 폭력, 논리와 비약 같은 상충 개념들을 충돌시켜 국가와 반공, 민족 등의 단어에 대한 질문으로 2001년 개인전 《명랑교 첫 부흥회 “난 명랑을 보았네!”》인사미술공간, 서울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후기 자본주의 속에서 생존하는 민중의 이중적 모습을 기록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작업합니다. 1999년부터 16회의 개인전과 200여 회의 기획전에 참여하며, 2005년 제13회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과 2017년 제16회 우민미술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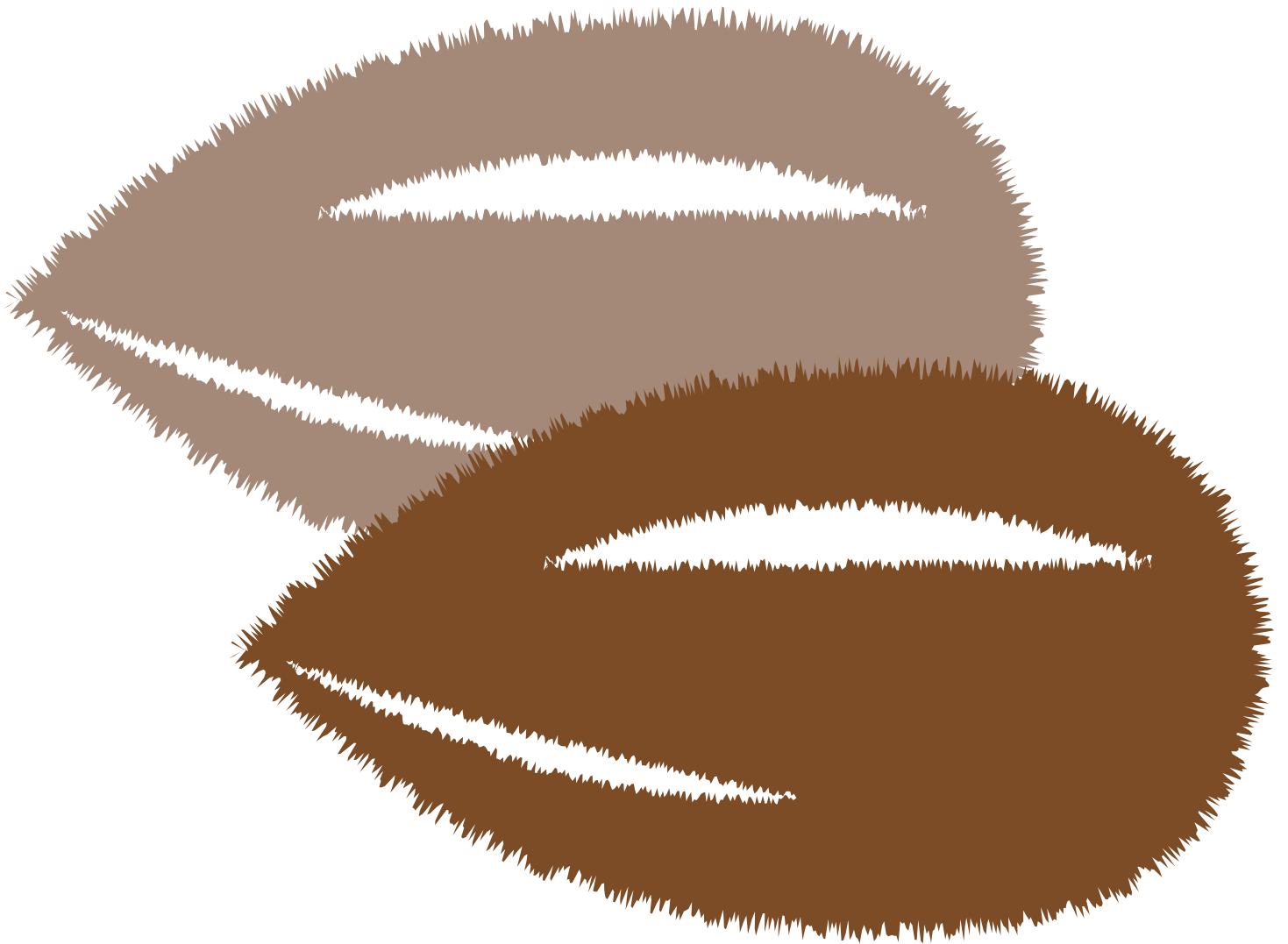
**조영주**는 ‘여성 신체 이미지’와 ‘여성의 삶’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치적 문제들을 다뤄온 작가입니다. 그의 작업은 다채로운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며, 특히 ‘돌봄’을 주제로 한국 사회의 불합리성을 탐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다익선: 즐거운 협연》국립현대미술관, 2022, 《나는 미술관에 ○○하러 간다》부산시립미술관, 2022 등 주요 미술관의 기획전에 참여하였으며, 2024년 송은에서 개인전 《카덴짜》가 개최되었습니다.

**조은지**는 자신과 다른 존재들 사이의 차이를 살펴보며, 인간과 다른 생명체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과 언어를 연구하는 작가입니다. 최근 전시들은 전통적 미디어에서 배척된 생물체들의 특성을 다루며 그들의 존재가 남긴 흔적을 탐구합니다. 최근의 주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수행하는 사람들: 조은지 비디오 스크리닝》Ruang MES 56,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2022, 《두 지구 사이에서 춤추기》대안공간 루프, 2021, 《불멸사랑》일민미술관, 2019, 《생태감각》백남준아트센터, 2019 등이 있습니다.

최소연은 비영리 사단법인 '소셜뮤지엄' 대표로서 제주에서 드로잉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다양한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접는 미술관>과 <테이크아웃 드로잉> 등이 있습니다. 2021년 제주 선흘마을에서 진행한 <할머니의 예술 창고>를 계기로 마을 할머니들에게 그림을 권하고 가르치며, 『할머니의 그림 수업 (그림 선생과 제주 할망의 해방일지)』<sup>2023</sup>를 출판했습니다.

## 《ㄷ떨:안녕인사》 기획자 소개

**김도희**는 몸을 통해 느끼는 경험과 작용을 더 깊이 생각하고 느끼면서 들여다보는 작가입니다. 최근의 개인전으로는 2024년 성북구립미술관 기획전 《빛선소리》와 2021년 수림미술상 수상작가전 《배꼽불》이 있으며, 주요 단체전으로는 2024년 부산현대미술관 《이것은 부산이 아니다: 전술적 실천》, 2022년 부산비엔날레 《물결 위 우리》 등이 있습니다. 원고지의 시대인 1970년대 미술잡지에서 영감을 받은 경험주의 미술잡지 『ㄷ떨』을 2023년 창간한 후, 기획과 편집을 맡고 있습니다.



# **오르트 구름**

## **Oort Cloud**

**제2전시실**

# 전시 《오르트 구름》, 김신재 기획

태양계의 가장자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태양계를 거품처럼 둥그렇게 둘러싸고 있는 가상의 천체 집단을 ‘오르트 구름’이라고 부릅니다. 천문학자들은 아직 관측된 적 없는 이 얼음과 먼지로 이루어진 구름을 혜성의 기원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저 1호가 오르트 구름을 지나기까지 약 3만 년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전시 《오르트 구름》은 IASmedia 아카이브의 외곽에 위치한 천체들을 다양한 방향으로 탐구합니다. IASmedia는 2006년부터 시작된 미디어 아카이브 기반 배급 프로그램입니다. 당시 젊은 작가들은 디지털 영상을 통해 다양한 예술 실천을 시도하면서 공식적인 제도 밖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탐구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싱글 채널 비디오 작품을 모으고 보존할 필요성이 커졌고, IASmedia는 배급을 통해 더 다양한 관객과 소통하고자 했습니다. 비디오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는 특성이 있어서, 새로운 이미지를 위한 네트워크가 필요했습니다. 2009년에 인사미술공간 아카이브가 아르코미술관으로 합쳐지면서 ARKOmedia가 이 일을 이어받았고, 2016년부터는 새로운 작품을 수집하는 일이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예술, 문화, 미디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영상 작품의 유통 방식과 관련된 이야기나 규칙도 변화했습니다. 소셜 미디어와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발달로 인해 많은 디지털 이미지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경험하기도 전에 그것이 사라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이렇게 중단된 아카이브가 남긴 빈자리를 통해 천체의 움직임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하늘을 직접 보는 대신, 스크린을 통해 고해상도의 별을 보고 있습니다. 전파 망원경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블랙홀 주변의 신호를 감지하고, 제임스웹 우주망원경은 적외선으로 130억 년 전의 빛을 포착합니다. 프리드리히 키틀러는 기술이 단순히 빛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 빛을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합니다. 첨단 이미지 처리 기술은 우주의 규모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나노 단위의 이미지도 잡아낼 수 있게 해줍니다. 초분광 영상, LiDAR, 신체 스캔, 위성 이미지 같은 기술들이 시와 결합하면서, 빛과 데이터의 이미지는 점점 우리의 눈과 멀어지고 시각적 경험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직접 보거나 느낄 수 없는 이미지, 데이터, 신호, 알고리즘이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이제 시각적인 경험은 더 이상 단순히 ‘보이는 것’만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시각문화와 시각 체제를 다시 생각해보는 흐름 속에서, 렌즈로 찍은 이미지가 현실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생각하거나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시 《오르트 구름》은 미디어를 환경과 인프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미지가 현실, 빛, 물질, 그리고 시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다시 생각해봅니다. 사진은 태양에서 나오는 빛과 입자 간의 화학 반응으로 만들어지며, 디지털 기기는 구리, 콜탄, 희토류 같은 지구에서 캐낸 오래된 광물에 의존합니다. 카메라와 같은 장치를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는 인간과 비인간적 요소의 협력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참여 작가들은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자연과 기술,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넘나드는 이미지를 제안합니다. 빛과 작은 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며 힘을 만들어내는지에 집중합니다. 아카이브 푸티지, 로우 테크놀로지, 아날로그 기법 등 일반적으로 구식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다시 살펴보는 과정은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냅니다. 오래된 미디어는 새로운 미디어에 의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재발명됩니다. 이 전시는 삶을 만들어가는 물질적인 기록과 비물질적인 작용 사이에 광학적 이미지를 놓습니다. 여기에서 ‘보기’라는 행위는 여러 감각을 통해 빛과 물질이 얽힐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냅니다.

혜성이 태양계의 초기 정보를 간직한 화석이라면, 오르트 구름은 미래를 보존하는 거대한 저장소입니다. 빛의 화석들은 과거의 잔재나 노스탤지어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단서를 품고 있습니다. 혜성의 궤도를 통해 오르트 구름의 영역을 추정하듯이 이번 전시는 질문들의 긴 꼬리를 따라 미지의 영역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 《오르트 구름》 작품 소개

김규림의 <600분><sup>2025</sup>은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이 진행 중인 렘브란트의 회화 <야경>의 복원 프로젝트에서 촬영한 초고해상도 이미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예술 작품을 촬영한 사진 중 가장 크고 정밀한 이 이미지는 1억 화소 카메라로 촬영된 8,439장의 사진을 AI 기술을 활용해 결합한 것입니다. 작가는 이처럼 회화의 복원 과정에서 활용되는 데이터이자 이미지의 위상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미술관의 보호 유리에 비친 복원 광경을 기록한 필름, 그리고 방치되어 마젠타 색상층만 남은 16mm 필름 푸티지를 함께 놓아 작품이 복원되는 시간성을 드러냅니다. 복원은 단순히 작품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성을 지우고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하는 과정입니다. 작가는 복원의 속성을 통해 이미지가 시간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그리고 보이지 않거나 사라지는 대상을 포착하고 시각화하는 기술이 이미지의 속성을 어떻게 변형하고 재구성하는지 탐구합니다.

이민지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며 사진을 찍습니다. 그녀의 작품 <낙진하는 밤><sup>2025</sup> 시리즈는 재난 이후 바다, 대기, 땅, 그리고 몸에 남아 있는 빛과 먼지를 포착합니다. 바람에 실려 퍼지는 낙진과 방사선은 장소와 사람의 몸 속에 스며드는데, 이 보이지 않는 물질들이 머무르는 풍경을 사진으로 담아 물질과 감각의 지도를 다시 그려냅니다. 작가는 땅과 바다가 대기와 만나는 해안의 수평선, 그리고 강과 바다가 숲과 만나는 하구의 습지 같은 경계 지대에서 시간과 물질의 흔적이 겹치고 흩어지는 장면에 주목합니다. 그녀의 다른 작품 <실버 스크린><sup>2025</sup>에서는 미세한 입자가 쌓여 있는 풍경이 발하는 희미한 빛을 담고 있습니다. 화석이 땅속에 남은 흔적을 보존하는 것처럼, 이 사진들도 빛과 반응한 입자를 화석처럼 남겨두고 있습니다. 작가는 대기의 먼지, 땅의 광물, 그리고 몸의 세포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사진을 통해 보여주며, 우리도 이러한 파국의 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우리의 영상 작품 <날날의 사람><sup>2017</sup>은 손바닥 위에 한 글자씩 새겨지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손가락의 움직임을 잘 따라가지 않으면 글자를 놓치게 됩니다. 이 영상은 16mm 필름 100피트를 사용해, 덧없는 순간들을 포착한 짧은 스케치 같은 느낌을 줍니다. 영상은 흐르는 시간, 기억, 그리고 이미지가 사라지는 과정과 그 잔상에 대해 탐구합니다. 작가는 그동안 사라짐의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으며, 필름의 두 가지 시간성(과거와 현재)과 (비)물질적 특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매체와 달리, 필름은 결과를 즉시 볼 수 없고, 현상과 편집에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연과 불확실성은 필름을 통해 촉각적이고 물질적인 시간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작가는 이 매체를 탐구하면서, 사라짐과 유한함, 그리고 거리감 속에서 디지털 환경 너머의 복잡한 세상이 가진 감각을 다시 생각해봅니다.

홍진훤은 역사적 이미지를 나타내거나 숨기는 시각적 힘을 탐구합니다. 그의 신작 <언다큐먼트드 모나리자><sup>2025</sup>는 미국 대공황 시기 ‘모나리자’라고 불리는 이주 여성의 사진을 중심으로, 아직 기록되지 않거나 우연히 사건이 된 이미지들을 다시 살펴봅니다. 그는 1930년대 미국의 농업안정보장국(FSA) 사진 아카이브와 2000년대 한국의 풍동 재개발 반대 운동, 그리고 고 윤금이 사진 게재 반대 운동 등의 다양한 자료를 조합하여 사건과 이미지가 어떻게 어긋나는지를 탐구합니다. 그는 사진을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바라보며, 사진이 특정한 시간과 공간을 우연히 지나면서 힘과 방향을 갖게 되어 우리 앞에 드러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영상은 이 가능성이 실제 사건으로 바뀔 수 있는 조건을 탐색합니다. 사진의 우연성과 실패는 아카이브의 잔여물로 남아, 보이지 않는 잠재성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황호덕은 물질과 비물질 같은 반대 개념이나 상태가 서로 충돌하고 섞이는 지점에 집중합니다. 그의 설치 작품 <머리가 헝클어져서><sup>2025</sup>는 우주 탐사선 보이저호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이저호는 1977년에 발사되어 지금도 항성과 항성 사이를 지나며 데이터를 지구로 보내고 있습니다. 작가는 보이저호의 통신 시스템을 간단한 기술 요소로 변형하고, 데이터가 전파 신호로 바뀌었다가 다시 복원되는 과정을 물질과 사물로 해석합니다. 이 작품은 광물 오브제, 검은 돌이 담긴 수조의 실시간 영상, 구리 스피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이저호라는 상징을 동적인 스펙트럼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기술이 물질, 정보, 언어, 이미지 등을 어떻게 변형하고 연결하는지를 탐구합니다. 작품의 제목은 보이저호의 골든레코드에 수록된 노래 가사에서 가져왔으며, 이는 다른 존재에 대한 상상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 《오르트 구름》 작가 소개

김규립은 시청각 기술을 통해 고정된 공간이 어떻게 유동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지를 탐구합니다. 최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포착하려는 시도 속에서 이미지가 생성되거나 사라지는 과정과 구조에 주목합니다. 개인전 《흔들리는 그림자》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2024, 《Dear Empty,》d/p, 서울, 2023, 《Memory and Matter》NEVERENVERLAND, 암스테르담, 2023, 《Arrived, Buried, Carried》윈드밀, 서울, 2021 등의 개인전을 열었고, 이인전 《Angles Morts》Punt WG, 암스테르담, 2022 등 에 참여했습니다.

이민지는 본 것과 못 본 것을 사진으로 담고, 그 시차를 가늠하며 단어와 목소리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다는 것’이 어떻게 다른 감각으로, 그리고 타자에게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탐구합니다. 작가는 개인전 《미래비미래》부연, 2024, 《오직 미래만이 과거를 방문한다》인천아트플랫폼, 2023, 《고스트 모션》갤러리조선, 2021, 《사이트-래그》함정지구, 2018를 개최했으며, 사진책 『그때는 개를 제대로 잘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사월의눈, 2019를 출간하였습니다.

한우리는 이미지와 언어의 관계에 주목하여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감춰진 것과 드러나는 것, 사실과 허구 사이를 오가며 동시대 일상 세계를 새롭게 바라봅니다. 개인전 《루프: 개를 흔드는 꼬리》아마도예술공간, 2024, 《실과 리와인더》아트 스페이스 보안 2, 2022를 열었고, 그룹전 《랜덤 액세스 프로젝트 4.0》백남준아트센터, 2025, 《프리즈 필름 2023》보안여관, 2023 등에 참여했습니다.

**홍진희**는 사진과 이미지를 둘러싼 권력 관계를 관찰하고 개입하는 일을 즐기며, 주로 사진, 영화, 웹프로그래밍 같은 매체를 다룹니다. 개인전으로는 《melting icecream》<sup>d/p, 2021</sup>과 《랜덤 포레스트》<sup>아트 스페이스 풀, 2018</sup> 등이 있고, 여러 단체전에도 참여했습니다. 또한 동료들과 함께 ‘공간 지금여기’, ‘더 스크랩’, ‘docs’와 같은 프로젝트를 운영하거나 기획했고, 지역 미술의 가능성을 고민하는 콜렉티브 ‘세컨드 콤플렉스’로 활동합니다.

**황호덕**은 물질과 비물질, 공간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작가입니다.

그는 특정 공간 내에서 이들 간의 혼합과 대립을 통해 발생하는 미묘한 긴장과 이완, 가시성과 비가시성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입체로 만드는 과정에서 종종 로우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기계적 구조를 활용하여 실험적인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전 《현자의 돌》<sup>문래예술공장, 2022</sup>, 《황소를 탄 지구인》<sup>루트, 2022</sup>, 《지형일 뿐인데》<sup>ONEROOM, 2021</sup>와 그룹전 《선셋 벳 라디언트》<sup>프레임성수, 2023</sup> 등에 참여했습니다.

## 《오르트 구름》 기획자 소개

**김신재**는 얽힌 감각과 물질 사이를 번역하는 예술 실천에 관심을 두고, 주로 시간 기반 프로젝트를 기획하거나 제작에 관여합니다. 2021년 국립현대미술관 《재난과 치유》의 위성 프로젝트 〈반항하는 동사들〉을, 2023년 제23회 서울국제대안영상예술페스티벌 시네미디어 포럼 주제전 《장소의 감각, 물질의 그물》을 기획하였습니다. 또한 웹진 『비유』의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